

전남 서부권

목포 해양의 꿈 미래로!

평화광장·삼학도서 29~8월 2일 해양문화축제 바다분수 불꽃쇼 등 관광객들에 추억 낭만 선사

“2011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와 삼학도에서 개최된다.
“해양의 꿈 미래로! 목포의 빛 세계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여름밤을 배경 삼아 다채롭고 화려한 빛의 조명을 받은 각양각색의 해양문화 콘텐츠를 실은 선박 퍼레이드와 공연, 세계 최초의 해양 음악 분수인 ‘출추는 바다분수’가 축제 기간 매일 밤 연출된다.
8월 2일 폐막식에서는 첨단 멀티미디어 장치인 워터 스크린 레이저와 화려한 불꽃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멀티미디어 바다분수 불꽃쇼’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축제장인 항구도시 목포를 상징하는 삼학도에서도 각종 스페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우수해양 전통문화공연과 목포 시립교향악단의 ‘남진 스페셜’, ‘비보이 페스티벌’, ‘MBC 바다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
부대행사로 는 시민 참여마당인 동 대학 시민 노젓기 대회와 전국 윈드서핑 대회, 범선·요트승선, 항해체험 등이 마련됐다.

목포해양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이기우)는 “이번 축제를 통해 목포의 해양문화를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오는 29일부터 5일간 열리는 ‘목포 해양문화축제’는 불빛다위와 열대야를 시원하게 날려보낼 여름 축제이다. 지난해 축제 모습.

“병원 입원 환자들에게도 친환경 식단 제공해달라”

목포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

학교급식에 이어 병원 식단도 친환경 재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포시가 올해 58억원을 지원해 관내 초등 31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소재로 무상급식을 제공, 시민들과 학부모는 물론 타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학생들이 잔류 농약 등 각종 유해성분에 노출된 식탁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친환경 소재로 바꿔 관내 학부모들의 걱정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목포 시내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가족들은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각종 질병 바이러스에 약한 입원환자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친환경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면역력이 쇠퇴되고 면역력의 저하로 2차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농약 농산물이 전남도에서 전국 57%를 차지하고 있어 유통업자들이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직거래로 병원에 납품할 경우 안전과 신선도 유지는 물론 운송거리가 가까운 가격 절감 등으로 환자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친환경농산물 공급인증제와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을 입원환자에게 공급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개월째 A병원에 입원중인 김모(목포시 연동)씨는 “학생들도 중요하

함평 70억 투입 주거환경 개선

2014년까지 공영 등 조성

함평군은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함평리 일원을 대상으로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고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주거생활 환경이 불량한 함평리 일원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구체적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빈집수리와 담장개량,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 후 오는 12월경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그동안 함평을 소재지이면서도 개발논리에 밀려 소외됐던 함평리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목포상의 예비창업자 지원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는 지역 연구자원을 활용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최대 2000만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연구개발,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컨설팅 등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ilee@

목포 신항에 3만급 자동차 전용부두

582억 투입 9월 착공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 신항에 3만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착공한다.
목포 항만청은 사업비 582억원을 투입해 올 9월부터 3년4개월의 공적으로 부지조성 9만6000㎡와 부두시설 240m, 호안 400m를 조성한다.
공사가 끝나면 목포 신항은 컨테이너부두 등 6개 선석으로 늘어나 연간 하역능력이 1000만 t 이상으로 향상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ilee@

자동차도 6200대 동시 야적이 가능하고 자동차 화물 처리능력도 연간 13만3000대에서 27만2000대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목포 신항에서는 수출용 자동차 선적을 위해 남측의 양곡부두를 이용했지만, 자동차 운반선 대형화와 야적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정장원 목포 항만청장은 “이번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로 수출용 자동차 선적에 따른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ilee@



웰빙식품 ‘진도 톳’ 軍 식탁에 진도지역 어린이들이 군납용 마른 톳을 포장하고 있다. 해조류인 톳은 식물 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웰빙식품으로 손꼽힌다. <진도군 제공>

전 북

경쟁력 없는 지역축제 ‘3진 아웃’

도, 선심성 행사 통·폐합... 체험·참여형으로 육성

전북도가 예산 낭비를 막고 수준 낮은 지역축제를 퇴출 또는 통·폐합한다.
전북도는 “지역축제 난립을 막고 유망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축제를 폐지하고 지역별 대표 축제로 전환해 예산을 차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최근 14개 시군의 소규모 지역 축제를 퇴출 또는 통·폐합했다.
올해 상반기 고창군의 북분자축제와 수박축제, 장어축제를 통합해 ‘고

창 북분자 페스티벌’로, 임실군의 치즈페스티벌과 오수 의견문화제를 ‘임실 봄 축제’로 묶었다.
또 군산시의 쌀 문화축제를 폐지하고 수산물 축제와 빛축제, 체육행사 등을 통합해 ‘새만금축제’로 전환하고 무주군의 철쭉축제를 폐지했다.
하반기에는 임실군의 ‘소송 사신문화제’를 ‘고추·산머루 축제’와 통합해 열고 완주군의 대둔산 축제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체험·참여형의 부안 마실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해 10월에 열기

로 했다. 도는 전주대 산업협력단을 축제 평가관으로 선정해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우수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추천할 계획이다.
그러나 ‘3진 아웃제’를 도입해 3년 간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쟁력 없는 축제는 퇴출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체가 도입 이후 선심성, 홍보성 행사가 난립하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축제만 엄선해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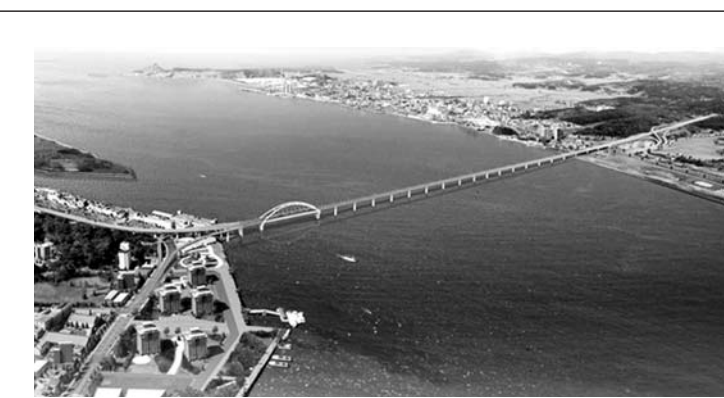
비응도에 종합리조트 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 유치가 무산된 군산 비응도에 종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방안이 확정돼 사업추진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비응항 관광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최종 용역’에서 비응도 호텔부지(4만 8245㎡)에 호텔형과 가족형 콘도, 아쿠아리움, 테마상가 등으로 구성된 종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

됐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사업비는 12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용역안에 따르면 2층 190실 규모로 신축될 호텔형 콘도는 호텔 수준의 고품격 숙박 기능을 살리고 여성 전용 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가족 중심의 일반형 콘도는 10층 260실 규모로 건립되며 인근 비응항과 연계한 관광 부대시설과 콘퍼런스 홀 등

아쿠아리움 등 조성 군산시 2014년까지

이 들어선다. 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아쿠아리움과 스카, 테마아케이드가 들어선다.
군산시는 조만간 공모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아울러 국내 1군 건설사와 금융권, 콘도업계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가 나서기로 했다. 특히 10월께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양질의 제안공모도 받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근식기자 nogusu@



군산~충남 서천 잇는 군장대교 예산확보 못해 2013년 준공 차질

오는 2013년 완공예정인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군장대교 건설공사가 국비지원 부족으로 공정률이 저조해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민간 국토관리청이 추진 중인 군장대교는 군산시 해망동과 서천군 원수리를 잇는 총 길이 3.18km(폭 20m, 4차선) 규모로, 사업비 1940억원(전액 국비)이 투자돼 2013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이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올해까지 740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정률도 28%에 그치고 있다.
올해초까지 가교 설치 진행됐으며 이달 말부터는 교량 상판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준공 목표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아 나머지 예산 1200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남은 2년간 연간 600억 원씩을 투입해야 하지만 정부의 예산상황을 고려할 때 녹록지 않다.
더욱이 군장대교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국가 예산과 보상 등의 난제가 겹치면서 2년 후 군장대교의 완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공정을 대비할 때 앞으로 남은 2년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2103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근식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혁신도시 농진청 4개기관 내일 청사 기공식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촌진흥청과 산하 4개 기관의 청사 기공식이 21일 열린다. 농진청은 오는 2014년말까지 혁신도시내 농업생명연구단지에서 건물과 연구실, 시험포장 등을 지어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산하 4개 기관을 이전한다.
농진청 등이 입주할 농업생명연구단지는 총 630만9000㎡ 규모로 모두 1조8000억이 투입되며 350만㎡의 시험포장과 141개 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전주 덕진 수영장 리모델링 23일 재개장

전주시는 시설 노후화로 3년째 폐쇄된 덕진 수영장을 23일 재개장한다.
1991년 건립된 덕진 수영장은 2008년 11월 보일러실 폭발 사고가 난 뒤 철거하기로 했으나 정동영 의원 등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재개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최근 13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왔다.
하루 이용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65세 이상 노인 2200원이다. 덕진 수영장은 그동안 전북도체육회가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무상 임대 형태로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김제경찰, 공직기강·음주문화 개선 워크숍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지난 18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휴가철 기강확립 및 음주문화 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전주대 신대철 교수를 초빙해 경찰 공직자의 사명과 책임, 음주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강연과 직원들의 결의대회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식 서장은 “휴가철을 맞아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완주군 정원 가꾸기 등 체험 ‘나뭇골’ 개장

완주군은 상판면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전시, 판매하고 정원 가꾸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나뭇골’을 만들고 19일 개장했다.
1만㎡ 규모로 만들어진 ‘나뭇골’에서는 목목 생산자인 상판면 용신마을, 마수대마을, 계민마을, 묘원마을 주민이 키운 수백 가지의 나무를 전시하고 한값에 판다. 주민들은 이곳에 주차장과 아파트 배란다, 옥상, 한옥 등에 어울리는 9가지 모델의 정원도 만들어 보여준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새만금 행정구역 어떻게 정할까

새로 생긴 새만금간척지의 관할 구역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합리적인 행정구역 체계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일 전북대 가인홀에서 ‘새만금 지역 상생 발전

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각 시·군의 주장을 검토하고 원칙을 밝혔다.
지난해 행안부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km) 중 일부(14km)와 다기능 부지(195ha)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고 시켰으나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의 취

지방자치학회 오늘 세미나

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고군산군도 지역의 정체성 탐구(원광대 나중우 교수) ▲해상경계선과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특히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새만금 광역행정 구상의 선결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간척지의 소유권은 관심과 균형발전의 잠재성 등을 고려해 상상할 수 있도록 세 가지단체에 공평하게 분할 배분해야 한다”면서 그 기준으로 해상경계선, 역사상, 생활권, 해안선의 길이 등을 제시했다.
새만금 간척지는 국립 지리원의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해 ‘바다